

광산구 고향사랑기부제 2년 '상생 선순환' 체계 구축

지난해 3080명 참여 3억1200만 원 모금...전국 평균 모금액 상회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 대상 발굴

광주 광산구가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아 상생 선순환에 기반한 '로컬의 확장 도모'에 나선다. 기부 참여가 실질적인 지역 변화·발전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지역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게 핵심이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총 3080명이 참여해 3억 1200만 원의 금액을 모금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밝힌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2억 6700여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도·농·공 복합도시면서 광역 단위 대도시에 속한 자치구 성격상 상대적으로 '고향'이라는 느낌이 빈약한데도,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전략적인 홍보 정책과 발로 뛰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7개 산업단지(20개)와 3400여 기업체에 6만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광주의 핵심 생산기지라는 특성을 활용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1대1 대면 홍보에 주력했다. 특히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충 상담을 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고향사랑 '제2의 고향'으로 여기도록 하는 전략 마련에 집중했다.

또 대한민국의 혁신을 선도한 광산구가 새롭게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약의 의미를 알리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설득하며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 기업체는 "직접 찾아온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에 광산구를 응원하고 싶어졌다"며 노사가 함께 현장에서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기도 했다.

광산구는 올해 2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핵심 과제는 기금사업 발굴이다.

기부 참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로 나아가려면 기부한 금액이 의미 있게 사용되는지, 또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광산구는 기부자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금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 민생 활력, 문화·예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모은 모금액을 활용한 '맞춤형 사업', 지역만의 차별화된 특정 사업을 내걸고 크라우드 펀딩처럼 지정 기부를 받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민과 공직자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추진 사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기금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면 향후, 출향 인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온라인 명예의



광산구는 지난 4~5일 황룡강친수공원에서 열린 제2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전당을 신설하는 등 사람과 지역 문화가 교류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광산지역 발전·성장에 함께 할 '관계 인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마을기업, 사회적경제, 여성기업, 소상공인 제품을 중심으로 답례품의 종류를 확대해 기부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현재 광산구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21

개 업체 49개 품목으로 이뤄져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광산구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산을 고향으로 여기고 기부금을 내신 기부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지역의 변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선순환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송정1동 주민 복지·문화거점 복합청사 '송정다누리' 개청

광주 광산구는 "송정1동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 거점이 될 복합청사 '송정다누리'가 문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개청식은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사회단체,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청식에서 참여 주민들은 청사를 상징하는 파란색 공,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 공,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초록색 공을 굴려서 거처다에 올리는 설정극을 선보이며 송정공동체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또 이날은 ㈜이마트 사회공헌사업으로 조성된 '이마트 키즈라이브러리' 작은 도서관 개관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송정다누리'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5228㎡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등지를 틀었다. 2층에는 작은도서관, 공유주방이 마련됐으며, 3층에는 드림스타트와 언어발달실, 4층에는 가족센터가 배치됐다. 5층은 청소년문화의집이, 6층에는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섰다.

송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가족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국민체육센터 등이 차례로 입주해 주민에게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 제정 의견 청취

광산구의회, 정책간담회

광주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장을 열었다. <사진> 지난달 30일 열린 간담회는 한은희 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 주재로 진행됐으며, 첨단·비아·수완 에너지전환 마을, 반짝반짝·지구별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광주에너지센터 등 지역 에너지 기관·단체, 관계 공무원, 광산구의회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2019년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된 이후 광주시와 동구 등도 시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조례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열게 됐다는 게 한은희 의원의 설명이다.

간담회는 에너지전환마을과 같은 에너지 공동체 조성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조점을 맞췄다.

공공이나 민간의 유류 부지를 확보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시설과 거점 공간을 설치하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판매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한은희 의원은 "심각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햇빛, 바람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며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사업이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광산구 탄소중립 실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16일 개최하는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이 들썩 '광산ON뮤직페스티벌' 지역 대표 축제 발돋움

7만여명 역대급 구름 인파...쉬면서 즐기는 '피크닉형 축제' 큰 호응 초호화 출연진에 무대마다 열광...블랙이글스 에어쇼 '하이라이트'

광주 광산구는 "지난 4~5일 황룡강친수공원에서 열린 제2회 광산뮤직ON(온)페스티벌이 7만여 명이 참여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인 황룡강 장륙습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초호화 출연진이 총출동해 꾸민 멋진 공연과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던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 등이 펼쳐진 이번 축제에는 어린이날 황궁 연휴까지 겹치면서 수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눈 호강, 귀 호강, 입 호강...콘텐츠 확장, 두 배 커진 '즐거움' = 지난해보다 뮤지션 라이브 공연을 두 배로 편성한 제2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시작 전부터 역대급 출연진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디셈버DK(디케이), HYNN(박혜원), 김기태, 국가스텐, 먼데이키즈, 멜로망스, 로맨틱펀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가수, 밴드 등 12팀이 출격했다.

축제 첫날부터 좋은 자리에서 무대를 감상하려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른 시간부터 본무대 주변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지난해 400석에서 올해 1000석으로 확대한 스탠딩석(입석)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둘째 날에는 아쉽게도 많은 비가 내렸지만, 적지 않은 시민이 여전히 무대 앞을 지키는 등 열기가 식지 않았다.

특별이벤트로 마련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는 이번 축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였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는 15분간 현란한 특수비행을 선보였다.

◇황룡강변 딱 재운 돛자리 '진풍경'...질서 안전 지킨 시민 참여 빛나=황룡강 장륙습지를 무대로 삼은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시작부터 남녀노소, 가족, 친구 등 누구나 편히 쉬며 소풍하듯 즐기는 '피크닉형 축제'를 내세워 큰 호응을 얻었다.

주 무대 돛자리석은 물론 인디언 천막(텐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뮤직피크닉존', 그늘

막이 설치된 '물멍빛명존'은 축제 기간 내내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자체 준비한 텐트를 이용할 수 있는 '개인텐트존'도 대형색 많은 텐트로 가득 찼다.

이튿날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단 한 건의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진 것은 행사장 안내, 질서유지, 교통 정리 등 자원봉사자 힘을 보탠 시민 덕분이었다. 광산구 자율방범 연합대, 해병대 광산전우회, 광산경찰서 전·경협의회 등을 비롯한 이틀간 총 300여 명 시민이 안전요원으로 참여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두 번째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 첫 회를 뛰어넘는 큰 성공을 거두며, 광주를 대표하는 음악 축제로 올라서게 됐다"며 "광산뮤직ON페스티벌을 광산의 젊고 역동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